하나님 충만과 잡동사니 증후군

(출15:1~27)

1.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4.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5.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충만과 잡동사니 증후군>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충만과 잡동사니 증후군'
'충만(充滿)'이란 말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어딘가에 무엇인가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가득 차서 넘쳐나는 상태가 충만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인이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는데 귀에 따갑도록 듣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운동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성령을 간구하는 어떤 교파의 사람들이 아닌, 겉으로 보기에 젊잖게 예배를 드리는 정통 장로교의 누구라도 성령 충만 없이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성령 충만은 필수적인 요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입니다. 선민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십니까? 성령 충만이 일상 속에서 경험 되십니까? 그러면 왜 성령 충만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 왜 바라지 않습니까? 바래본 적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인데 바라지 않는 이유는, 바래봐야 안 주어지고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 충만의 반대가 무엇인지를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가 무엇이죠? 성령 부재입니까? 부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령 빈곤이나 성령 결핍입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의 반대말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의 반대 상태를 제거하면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바랄 수도 있지만 바라기 전에, 더 근원적이고 우선적으로 주님과 하나님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성령 부족 상태, 성령 결핍 상태, 성령 부재 상태, 성령 빈곤 상태를 떠올리는데,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잡동사니 증후군입니다.
'잡동사니 증후군'은 내 주변을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이 뒤섞인 채로 잔뜩 어지럽혀 놓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물건을 버리지 못해서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잡동사니 증후군으로 내 마음이 이 잡동사니 증후군 상태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의 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해서 말하자면 성령 충만 혹은 하나님 충만의 반대되는 말은, 하나님 결핍, 하나님 부재, 성령 부재, 성령 빈곤이 아니라, 돈 충만이나 애인 충만 등을 말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온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입만 열면 김연아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김연아 충만 입니다.
시청률이 50%가 넘는 드라마가 있다면 온 국민이 드라마에 빠져서 그걸 모르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이 바로 드라마 충만이 됩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는 이렇게 성령과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충만한 잡동사니 증후군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돈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돈을 벌 수 있는 길과 돈을 벌 수 있는 지혜가 뚜렷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또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을 바라고, 또는 목회로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을 바라는데 다 난센스고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돈 충만 상태가 성령 충만의 반대인데, 돈을 벌려고 성령 충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고, 입만 열면 목회와 숫자적인 부흥과 예배당을 잘 짓는 것이 관심사인 분이 성령 충만을 바라면, 반대 상태를 고집하면서 성령 충만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목회 충만인 상태를 제거하고 목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걱정과 근심거리들을 마음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이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 말고 반대 상태를 제거하시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 반대가 성령의 부재인 줄로 알지만, 성령 충만의 반대는 돈 충만이고, 애인 충만이고, 가족 충만이고, 배우자 충만이고, 사업 충만이고, 건강 충만이고 잡동사니들의 충만입니다.
불가입성(不可入性)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개의 물체가 동시에 같은 공간을 충만하게 차지하지 못하는 성질이 불가입성의 원리입니다. 충만은 한 가지만 있을 때에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으시다면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할 때처럼 내 마음속에 다른 모든 이름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 자신과 존재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에 하나님 외의 온갖 가족, 직장, 인간관계, 돈 문제, 건강, 취미들이 들어와 있는 잡동사니로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을 바라는 것은 정 반대의 상태를 고집하는 것이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오해에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기적을 행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성령 충만해도 평생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명이 그렇다고 하면 기적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의 차이와 관계없이 보편적이고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성령의 열매라는 말보다 근본적인 그 열매의 뿌리가 되는 일들이 있는데, 내 눈 앞에서 손으로 만져지는 내 가족보다 하나님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우리 집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현실감보다도 더 강렬한 느낌으로 천국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 천국이 지금 먹고 사는 이 집보다도 더 강렬한 현실로 느껴질 때에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내 집보다도 더 강렬한 현실로 느껴진다면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싸우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홍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실제로 앞에는 발을 담그면 물이 찰랑거리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맹렬한 복수심에 불타서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있었는데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지난 뒤에 그 뒤를 따라오던 모든 애굽 군대는 물이 다시 덮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스케일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민족에게 닥친 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데 갑자기 기후조건 때문에 일본의 모든 군대가 몰살을 당했다면 우리민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모세의 노래와 그 뒤에 이어지는 19-21절의 미리암의 노래로 나옵니다. 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는 한 절 한 절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 충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면 차가운 홍해와 뒤에서 맹렬하게 추격해 와서 나의 가족을 몰살 시킬 것 같은 두려움을 주던 애굽보다도 우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강렬한 현실로 느껴지는 상황이 바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난 3시간 정도 동안은 대한민국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돈 문제 때문에 사업이 망하게 생긴 사람에게 김연아의 금메달 소식이 대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업 충만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라의 쓴 물 사건이 나오고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 엘림에 도착해서 쉬었다고 합니다. 사흘 동안을 걷는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으로 이미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통해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충만이 이루어졌는데 왜 사흘을 못 갈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찬 충만함이 사흘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죽이시겠습니까? 애굽이 쳐들어오고 홍해가 막고 있을 때에도 살려주셨는데, 삼일 동안 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 목말라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충만이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 충만으로 대체됩니다.
육체가 물을 못 마시는 상황이 두렵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충만하게 된 이유가 보통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놓고서 물을 안 줘서 죽이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원망 충만으로 바뀌어버렸을까요? 여기에 충만에 얽힌 내막이 있는 것이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애한테서 받은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음식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으니 예수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고, 바다 건너까지 예수님을 쫓아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6: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하십니다.
‘표적’은 지금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심인데, 오히려 이 예수 충만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 충만과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타난 오순절의 성령 충만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마음 외부로부터의 충만이 있고 마음 내부로부터의 충만이 있습니다.
이 마음 외부로부터의 충만은 일시적인 것으로, 잡동사니 상태가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만해지는 것으로, 내 안에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사업 문제에 대한 걱정으로 이것,

저것 신경 쓸 것이 많고, 목회 현장에서도 이렇고 저렇게 신경 쓰이는 것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일로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 하나를 확 풀어주셔서 그 때에 감격합니다만 이때에는 하나님 충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미리암과 노래하는데,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같은 노래를 불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잡동사니 증후군의 상태로 하나님 충만처럼 보이는 노래를 불렀지만 하나님 충만이 아니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애굽 군대가 와서 내 가족을 죽이고 재산을 몰살시킬 것을 두려워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재산걱정 충만, 가족걱정 충만, 목숨걱정 충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싹 해결해주시자 하나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충만 같아 보이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잡동사니 상태로 있었던 걱정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앞으로 창창한 핑크빛 미래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 충만이 아니라 잡동사니 충만의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 그 내용을 보면 내가 걱정했던 목숨과 가족과 재산을 지켜주셨다고 입으로는 모세와 같은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뿐, 잡동사니를 마음에 담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충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 잡동사니들이 하나님 덕분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은 내 마음의 잡동사니들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미래에 엄청난 번성을 가져다 줄 분으로서의 기대감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충만으로 보이던 노래를 부르던 주인공들이 삼일 만에 불평 충만으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기 흉한 잡동사니 쓰레기더미가 있었는데 겨울에 눈이 와서 10cm쯤 쌓이자 하얀색으로 온 천지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따듯한 햇살이 비치자 하루 만에 눈이 녹으면서 쓰레기더미가 다시 나타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일 하나가 잘 풀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충만해서 감사헌금도 내고 하다가 무슨 일이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원망과 회의와 불평 충만으로 바뀌어버리는데 이것은 지금 잡동사니 상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십자가 사건을 두고 열두 제자가 다 도망간 이유는 잡동사니 증후군이 해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나라에 대한 걱정이 있고, 미래에 대한 포부가 있고,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욕심이 있었고, 이러한 잡동사니들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니 예수님 충만했는데, 그것은 쓰레기더미 위에 내린 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역사 때에는 제자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 땅에서의 모든 소원이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더 이상 주님은 이 땅에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

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마음이 주님과 묶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음에서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잡동사니 증후군이 말끔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강하게 요청했던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성령 달라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때에는 성령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행1:4절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로 나오지만 논리적으로 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마음에서 잡동사니 증후군을 제거한 채로 기다리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돈 때문에 쪼들리고 있을지라도 돈 충만한 상태가 사라지고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 마음속에 남아서 하나님 충만이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첫 번째 현실로 느끼기 때문에 돈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라 사건이 나타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동사니 증후군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고, 오늘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따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잡동사니 충만에 충만을 더한 사건으로 외부로부터의 충만에서 나온 노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내부로부터 충만이 일어나면, 물 삼일 동안 먹지 못해서 불평 충만의 상태가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도 예수를 찬양하게 되고, 톱에 켜서 죽어도 예수를 찬양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부로부터 쓰레기더미를 불도저로 다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이름만 계셔서 그 이름에 해당되는 존재로 충만해지는 내부로부터의 충만이 일어날 때에는 현실 세계의 상황에 있는 어려움조차도 뚫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잡동사니가 그대로 있는 채로 외부로부터 온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찬양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찬양도 아니고 하나님 충만도 아닌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을 수 있으나, 충만의 근본 원인은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잡동사니들을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주신다는 미래의 기대감으로 충만한 것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러한 노래가 나왔을 것입니다.
모세는 달랐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똑같은 노래를 부르지만 잡동사니 증후군이 치료된 상태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의 반대는 하나님 부재, 하나님 결핍, 하나님 빈곤이 아닌 돈 충만 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시려면 반대의 충만 상태를 제거해야 하는데 우리 마음이 돈, 건강, 사업, 자식이라는 잡동사니로 차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들어와 계실 수 없습니다.

멀쩡한 내 자식일지라도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불결의 원인이고 쓰레기더미가 되고, 멀쩡한 내 사업장이지만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불결의 원인이고 쓰레기더미가 됩니다. 있어야 될 곳이 아닙니다. 내 가족과 사업과 건강과 직장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어야 하는 것일 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것들을 내 마음에 담는다면 내 마음은 잡동사니 쓰레기더미가 되므로,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돈 걱정 하면서 기도하고, 자식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충만을 바라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충만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잡동사니 증후군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충만과 성령 충만을 소원하고 살다가 그것도 안 되니 제풀에 지쳐서, 성령 충만은 그저 특정 교파의 일로만 밀어 붙여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불행한 신앙 현실을 긍휼히 보셔서, 온전히 잡동사니 증후군이 제거됨으로써 성령 충만이 경험되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